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76
JUN 18 2021

발간년월 2021년 6월 18일 (통권 제17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제2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개최
- 러 철도~항만 복합 운송 루트 활용한 물동량 늘었다.
- 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새로운 법안 발의

주요 통계

- 2021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제2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개최

그림. 제2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식



자료: <https://www.expoforum.ru/ru/news/detail/Vladimir-Putin-vystupil-na-plenarnom-zasedanii-PME/>

■ 국제 경제와 비즈니스 부문의 국제 협력 논의하는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a)}

-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은 199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2006년부터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가 확대되었음
- 이 행사에는 총 141개국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Total Energies SE, Siemens AG, SAP SE, Linde Plc, Qatar National Bank QPSC, Schneider Electric SE, Societe Generale SA, Engie SA, ABB Ltd, BP Plc, OMV AG 등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음
- 올해 포럼에서는 총 4조 2,666억 루블에 달하는 890건의 투자계약이 성사되었는데,
- 레닌그라드 주는 29건(약 1조 323억 루블), 모스크바 주는 47건(2,500억 루블), 카렐리야 공화국은 15건(2,360억 루블), 크라스노다르스키 크라이는 22건(1,600억 루블), 툴라는 26건(1,500억 루블)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음

■ 6월 3일에는 ‘북극 개발의 새로운 라운드 : 도전과 가능성’ 세션도 열려

-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로스아톰 북극 특별 대표,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한 ‘북극 개발의 새로운 라운드: 도전과 가능성’ 세션도 열렸음

- 해당 세션에서는 북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지, 기업인들의 투자 리스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러시아 회계회의소 감사원은 인프라 낙후 문제, 북극지역 주민의 낮은 복지 수준, 인구유출, 교육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전체적인 북극 개발의 방향은 에너지 생산, 북극지역의 전력 공급, 내륙 교통 개발, 환경 보존이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러시아 정부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북극 연안에서 탐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과학탐사선 및 부유식 내빙 플랫폼 ‘세베르니 폴류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북극 세션



자료: <https://www.hibiny.com/news/archive/240214/#5>, <https://forumspb.com/programme/business-programme/91414/#broadcast>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은 북극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석·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은 올해 제정된 우리나라 ‘극지활동진흥법’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 경제활동’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한국은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야말과 Arctic LNG 2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한 실적이 있고,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기술협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또한 그는 올해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지속가능 워킹그룹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AHEAD 사업(Snowflake 기지건설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협력 파트너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장영태 원장은 북극항로 운항과 관련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안전 기준이 마련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며, 실질적인 국제항로로서 개발하기 위해 IMO, 북극이사회, 이해관계국 간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표. 북극 세션 발표자 리스트

	한글	영문명	소속	직급
1	알렉세이 체쿰코프	Aleksei Chekun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2	스베틀라나 오를로바	Svetlana Orlova	러시아 회계회의소	감사원
3	블라디미르 파노프	Vladimir Panov	로스아톰(Rosatom)사(社) 북극개발국가위원회	북극 특별 대표 부회장
4	안드레이 그라체프	Andrey Grachev	노릴스키 니켈 (Norilskiy Nikel)사(社)	부회장 (연방 및 지방 프로그램 담당)
5	알렉세이 베스프로즈반니흐	Aleksei Besprozvannykh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6	로만 트로첸코	Roman Trotsenko	AEON사(社)	이사장
7	세르게이 프랑크	Sergei Frank	소브콤플롯 (Sovkomflot)사(社) Smart LNG 사(社)	이사장 이사장
8	올렉 노바쑁	Oleg Novashuk	KAZ Minerals PLC*	회장
9	펠릭스 추디	Feliks Tchudi	Tschudi Group	이사장(온라인)
10	장영태	Cha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온라인)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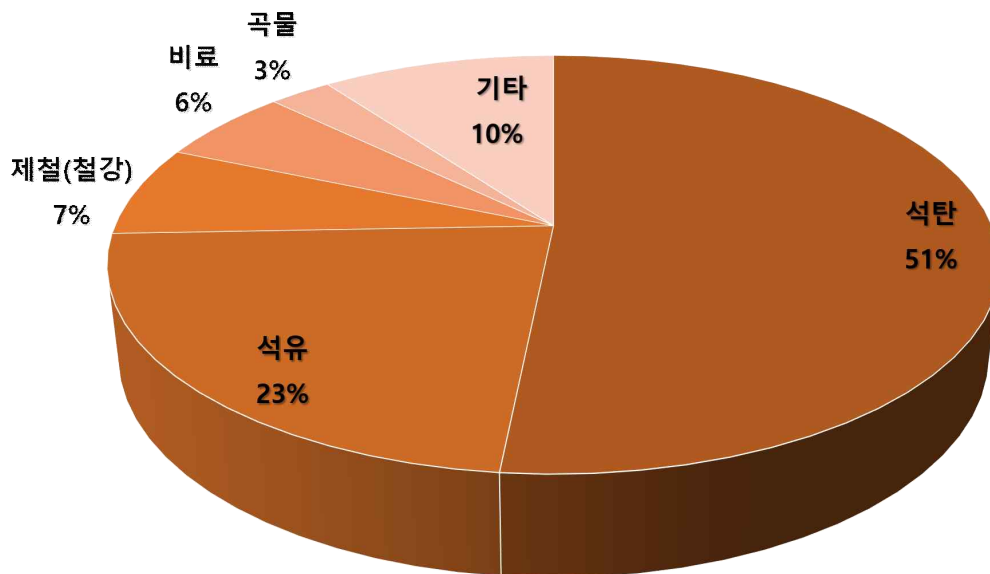
- [https://www.hibiny.com/news/archive/240214/#5\(2021.6.15. 검색\)](https://www.hibiny.com/news/archive/240214/#5(2021.6.15. 검색))
- [https://forumspb.com/en/about/?lang=kor\(2021.6.15. 검색\)](https://forumspb.com/en/about/?lang=kor(2021.6.15. 검색))
- [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1/06/09/itogi-raboti-pmef-2021\(2021.6.15. 검색\)](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1/06/09/itogi-raboti-pmef-2021(2021.6.15. 검색))

러 철도~항만 복합 운송 루트 활용한 물동량 늘었다.

■ 1~5월 철도→항만 운송물동량, 전년 같은 기간 8% 증가·1억 4,820만 톤 기록^{a)}

- 최근 러시아 철도청 자료에 따르면 총 물동량 중 51.6%가 석탄이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해 764만 톤을 기록했음
- 철도에서 극동지역 항만으로 운송된 석탄량은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해 4,120만 톤을 기록했음
- 러시아 철도를 통해 수출되는 석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와 곡물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
- 고체 연료의 경우, 북서지역 항만으로 운송된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해 2,370만 톤을 기록했으며, 남부지역 항만으로 운송된 물량은 76.9% 증가해 1,150만 톤을 기록했음

그림. 철도~항만 통해 운송된 화물 종류별 비율



자료: <https://seanews.ru/en/2021/06/11/ru-zhd-jeksport-cherez-porty-5-mesjacev-2021-pogruzka-uglja-uvelichi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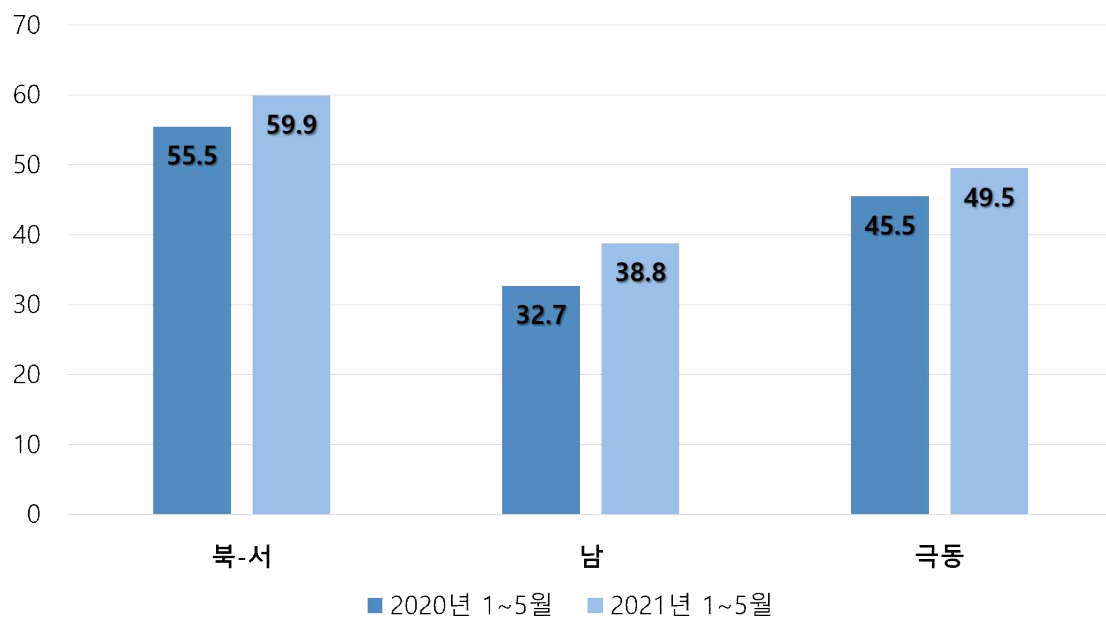
■ 5월 철도~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3,240만 톤으로 4월 대비 15.4% 감소^{a)}

- 2021년 5월 기준 철도~북서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1,420만 톤으로 4월 대비 9.2% 증가한 반면, 남부지역은 810만 톤으로 21.4%, 극동지역은 1,010톤으로 22.9% 감소했으나 누적 물동량 수치는 증가 추세를 보였음

- 올 1~5월 철도~북서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동량은 총 5,99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남부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동량 역시 18.4% 증가해 3,88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a)}
- 같은 기간 동안 철도~극동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동량은 총 4,9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음

그림. 철도~항만을 통해 수출된 물동량(수역별)

단위: 백만 톤



자료: <https://seanews.ru/en/2021/06/11/ru-zhd-jeksport-cherez-porty-5-mesjacev-2021-pogruzka-uglja-velichilas/>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seanews.ru/en/2021/06/11/ru-zhd-jeksport-cherez-porty-5-mesjacev-2021-pogruzka-uglja-velichilas/> (2021.6.15. 검색)

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새로운 법안 발의

■ 러시아 정부,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업체에 공통 요구조건 부과^{a)}

- 현재 러시아에서 LNG 수출 허가권을 가진 곳은 가즈프롬(Gazprom), 로스네프트(Rosneft), 노바텍(NOVATEK)과 지금 알베르트 아브도리안(Albert Avdolyan) 대표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극동의 대규모 천연가스 생산단지인 에이 프로퍼티(A-Property) 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5월 15일 승인된 2035년까지 가스 및 석유 분야 개발 계획에 의거,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업체에 공통 요구 조건을 수립할 예정인데, 해당 조건에 “러시아 연방의 경제 이익 보호”를 위해 LNG 수출의 확대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사항을 명시할 방침임

■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노바텍은 이미 러시아의 LNG 수출 허가권을 보유

- 해양 LNG 개발허가를 보유한 국영기업 로스네프트(Rosneft)는 2013년 초 LNG플랜트 건설과 LNG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에서 LNG를 생산하는 국영기업 노바텍(NOVATEK)은 야말과 기단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노바텍(NOVATEK)은 2013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허가권을 확장한 바 있는데, 로스네프트(Rosneft)는 법 개정을 통해 LNG 수출허가권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에이 프로퍼티의 글로벌텍(GlobalTek)^{b)}도 새로운 LNG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야쿠티아(Yakutia) 지역의 경우 2026년~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1,770만 톤의 LNG 생산이 가능한 플랜트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 로스네프트(Rosneft)와 엑손(Exxon)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는 ‘극동 LNG 사업’(사할린)의 잠재적인 경쟁사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가즈프롬은 LNG 수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

- 지난 1월 가즈프롬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와 장기 공급(LNG플랜트 생산량의 절반) 계약을 체결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LNG수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코메르산트(Kommersant)^{c)}는 LNG 수출 허용 기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정부는 LNG 수출 허용 기준 관련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LNG를 포함한 가스 시장의 모든 부문의 개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비곤 컨설팅(Vygon Consulting)의 마리아 베로바(Maria Belova)는 “미국처럼 LNG 무역의 세계화, 특히 원재료와 재수출 증가를 감안하여 계약상 지리적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20개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는 모든 LNG 플랜트는 수출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허가제도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LNG 수출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임
- 호주의 경우, 가스가 부족하거나, 국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시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LNG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스콜코보 에너지센터(Skolkovo Energy Center)의 가스 분석가 세르게이 카피토노프(Sergey Kapitonov)는 “시장 분할 관행은 EU 반독점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특정 시장으로 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 사실이 입증되면 회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참고자료

- a) <https://pro-arctic.ru/13/05/2021/news/43563#read>(2021.6.9. 검색)
- b) 알베르트 아브도리안(Albert Avdolyan)대표
- c) Kommersant: 러시아 주요 언론사



주요 통계



표. 2021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4.18 (+10.4%)**	6.49 (-7.3%)	20.67	+3.7%
북극해	2.09 (-8.2%)	5.69(-4.7%)	7.78	-5.7%
발트해	10.22 (+5.7%)	11.73 (-14.5%)	21.95	-6.2%
아조프-흑해	8.51 (+6.1%)	12.2(-9.0%)	21.71	-3.1%
카스피해	0.23 (-29.8%)	0.4 (+3.4%)	0.62	-11.5%
합계	35.23(+6.1%)	36.51(-9.7%)	71.74	-2.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https://nangs.org/news/economics/gruzooborot-morskih-portov-rossii-za-5-mesyatsev-s-nachala-goda-vyros-na-32\(2021.6.17. 검색\)](https://nangs.org/news/economics/gruzooborot-morskih-portov-rossii-za-5-mesyatsev-s-nachala-goda-vyros-na-32(2021.6.17. 검색))
- [https://portnews.ru/news/312779/\(2021.6.17. 검색\)](https://portnews.ru/news/312779/(2021.6.17. 검색))
- [http://www.morvesti.ru/news/1679/90045/\(2021.6.17. 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90045/(2021.6.17. 검색))

표.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25,225.3	71,084.9	938.2	663.4	326,163.5	71,748.3
25-27	광물 제품	405,678.3	23,732.9	28,780.7	41,079.5	434,459.0	64,812.3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30,529.4	21,899.3	218.4	0	330,747.8	21,902.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5,237.7	81,763.9	907.6	270.9	36,145.3	82,034.8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0	1,229.0	6.0	7.2	7.0	1,236.2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3,786.2	11,668.6	814.9	68.7	94,601.1	11,737.3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137.9	29,461.0	111.0	397.1	248.8	29,858.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9,114.6	61,321.8	376.2	2,841.2	59,490.8	64,163.0
84-90	기계류	60,760.1	477,716.4	1,470.3	4,031.6	62,230.5	481,748.0
68-71, 91-97	기타	636,563.1	41,566.5	21,793.1	292.1	658,356.1	41,858.6
	합계	1,616,504.1	799,545.1	55,197.9	49,651.7	1,671,702.1	849,196.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6.17. 검색)

표.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장수산물	0	0.0	-	-	-	-	-	-	0.0	0.0	-	-
0303	냉동수산물	117,986	145,064.1	1,436	4,479.0	60	50.0	-	-	118,046.0	145,114.0	1,436	4,479.0
03031	연어	126	429.9	-	-	0	0.0	-	-	126.1	429.9	-	-
030331	광어	223	1,223.3	-	-	-	-	-	-	223.4	1,223.3	-	-
030332	가자미	345	269.8	-	-	-	-	-	-	344.6	269.8	-	-
030339	기타 넙치류	1,188	762.6	-	-	-	-	-	-	1,188.4	762.6	-	-
030351	청어	6,009	3,684.7	-	-	20	22.3	-	-	6,028.6	3,707.0	-	-
030363	대구	9,289	21,302.6	-	-	-	-	-	-	9,289.4	21,302.6	-	-
0303670000	명태	92,309	93,735.4	-	-	0	0.0	-	-	92,309.0	93,735.4	-	-
0303893	농어	0	0.0	-	-	-	-	-	-	0.0	0.0	-	-
030391	알류	5,203	41,383.4	-	-	-	-	-	-	5,202.9	41,383.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440	641.7	-	-	-	-	-	-	439.7	641.7	-	-
0304	생선 필레	10,849	30,750.7	196	608.9	9	26.1	-	-	10,857.7	30,776.8	196	60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	3.7	24	119.7	0	0.0	-	-	1.0	3.7	24	119.7
0306	갑각류	5,234	115,369.7	29	192.2	-	0.0	-	-	5,233.7	115,369.7	29	192.2
030614, 030633, 030693	게	3,472	99,191.3	-	-	-	0.0	-	-	3,471.7	99,191.3	-	-
0307	조개류	781	1,587.3	-	-	1	4.6	-	-	782.2	1,591.9	-	-
03072	가리비	511	996.1	-	-	-	-	-	-	510.6	996.1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202	444.9	46	135.8	1	4.6	-	-	203.0	449.6	46	135.8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086	3,177.9	-	-	0	0.0	-	-	1,086.0	3,177.9	-	-
03081	해삼	78	118.3	-	-	0	0.0	-	-	78.3	118.3	-	-
03082	성게	1,007	3,050.8	-	-	-	-	-	-	1,007.4	3,050.8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6.17. 검색)